

## 재가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김 순 이\* · 이 정 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10%를 넘어 2026년에는 20%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사회에서 도전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ee & Moon., 2012). 생의 전환주기 중 노년기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요구가 강해지는 시기로(Oh, 2008) 연장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매우 중요하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초월이 있다(Jang & Kim, 2008).

자기초월은 미래시대의 복지에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죽음에 과다하게 집착하는 것을 피하며 일생을 이기심 없이 관대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포괄적인 의미의 심리사회적인 지표이다. 자기초월은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적응은 물론 반성적으로 자기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성공적인 노화과정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개념으로(Reed, 1991), 노인의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Reed, 2009). 또한 노인의 삶과 노화과정,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 있게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Baker, 2009), 노화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Tornstam, 1999). 즉 노년기에 자기초월을 이룬다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의미 있게 교통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위한 영적인 안녕을 자기초월의 개념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요구가 있고 영적 안녕을 추구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는 상실, 허약감,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어느 시기보다 더욱 영적인 요구를 갖게 된다. 노인은 신체적인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활동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Riffle, Yoho & Sams, 1989). 영적안녕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을 높이며,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Kim, Kwon, Choi, Park & Kim, 2010)를 고려

\* 혜천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혜천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jilee@hu.ac.kr)

투고일: 2013년 9월 9일 심사외뢰일: 2013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Jeong In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15-3 Boksoo-Dong, Seo-Gu, Daejeon 302-715, Korea

Tel: 82-42-580-6284 Fax: 82-42-580-6289 E-mail: jilee@hu.ac.kr

할 때 노인의 영적안녕에 대한 재조명은 물론 영적 안녕과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노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죽음불안을 경험한다(Park & Hur, 2012). 죽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자연현상이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노년기와 가장 관계가 깊어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은 노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Lee, 2012).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상황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일환으로 자기초월 현상을 경험하는데(Wayman & Gaydos, 2005), 즉 신체기능이 감소되고 노인에 대한 지지망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위협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역동적인 방법으로 자기초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기초월에 대한 연구는 정서적 안녕과 삶의 질 증진(Neill, 2002), 삶의 회복 및 삶의 목적추구(Nygren et al., 2005), 영적인 안녕(Thomas, Burton, Griffin & Fitzpatrick, 2010)과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며, 국내에서는 자기초월이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 요인이라 제시한 Kim과 Kim (2011), Kim (2012)의 연구가 있고, 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초월이 노년기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 심리, 영적 안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중요한 개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자기초월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의 정도를 확인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일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243명을 편의 표출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문자 해독이 가능한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 Power 프로그램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110명 이상이 계산되었다. 설문지는 총 250부 작성되었으나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4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자기초월

자기초월은 일생을 관대하게 살며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내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Reed,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Reed (1986)가 개발한 Self Transcendence Scale(STS)를 사용하였다. STS는 15문항이며 문항 평점은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초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TS는 원저자의 사용동의서를 이메일로 받고 본 연구자들이 일차로 번역한 후 노인간호학 전공교수 및 정신간호학 전공교수, 노인전문 간호사 각 1인과 국어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재수정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개발 당시(Reed, 1991)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 2) 영적안녕

영적안녕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Burkhardt, 1989)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 (1982)이 개발한 것을 Sung (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20문항이며 문항 평점은 1-6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ung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 3) 죽음불안

죽음불안은 존재의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사후 결과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Choi, 2007), Templer(1970)가 개발한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Ko, Choi, & Lee(200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15문항이며 문항 평점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o 등(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일 대도시의 노인정을 방문하여 미리 연구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에 설문 내용에 대하여 교육받은 6명의 연구보조자들이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  $\alpha$ 는 .05로 양측검정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하여 영적안녕, 죽음불안 및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검정, 잔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만족되었다.

## Ⅲ. 연구 결과

### 1.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정도

대상자의 자기초월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6점, 영적안녕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4.19점이며, 죽음불

Table 1. Mean Scores and Range for Self 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N=243

Variables	M (SD)	Minimum	Maximun	Possible range
Self transcendence	2.96(0.47)	1.93	3.27	1 - 4
Spiritual well-being	4.19(0.84)	1.00	5.25	1 - 6
Death anxiety	3.08(0.54)	1.53	4.33	1 - 5

Table 2. Differences of Self 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 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Death Anxiety		t or F	Scheffe
			M±SD	(p)	M±SD	(p)	M±SD	(p)		
Gender	Male	53(21.8)	3.05±0.53	1.66 (.098)	4.15±0.84	-38 (.702)	2.93±0.57	-2.39 (.018)		
	Female	190(78.2)	2.93±0.45		4.20±0.84		3.12±0.52			
Years	60 - 69	81(33.3)	3.02±0.51	1.80 (.168)	4.24±0.89	.67 (.511)	3.11±0.54	.48 (.619)		
	70 - 79 above 80	116(47.7) 46(18.9)	2.95±0.42 2.86±0.48		4.21±0.78 4.07±0.89		3.09±0.51 3.08±0.54			
Religion	Have	181(74.5)	2.99±0.49	-1.81 (.071)	4.37±0.81	-6.21 (.001)	3.07±0.54	.78 (.434)		
	None	62(25.5)	2.86±0.39		3.66±0.69		3.13±0.52			
Education	No education(a)	47(19.3)	2.89±0.44		3.98±0.82		3.14±0.62			
	Elementary school(b)	107(44)	2.91±0.46	4.87 (.001)	4.12±0.87	2.86 (.024)	3.04±0.51	.625 (.645)		
	Middle school(c)	44(18.1)	2.87±0.39		4.33±0.67		3.16±0.45			
	High school(d)	32(13.2)	3.17±0.48		4.38±0.91		3.04±0.61			
	University(e)	13(5.3)	3.33±0.57		4.68±0.75		3.00±0.53			
Spouse	Yes	124(51.0)	3.03±0.48	2.55 (.011)	4.35±0.77	2.94 (.001)	3.05±0.59	-1.05 (.294)		
	No	119(49.0)	2.88±0.44		4.03±0.88		3.12±0.48			
Family	Alone	61(25.1)	2.92±0.40		4.00±0.86		3.05±0.50			
	With partner	86(35.4)	3.03±0.48	1.09 (.354)	4.37±0.75	2.61 (.052)	3.03±0.59	1.10 (.348)		
	With married sons & daughters With unmarried sons & daughters	71(29.2) 25(10.3)	2.91±0.44 2.93±0.63		4.12±0.81 4.25±1.03		3.18±0.46 3.08±0.61			
Economic status	Good	179(73.7)	3.02±0.45	3.84 (.001)	4.28±0.81	2.64 (.009)	3.08±0.52	-1.15 (.878)		
	Bad	64(26.3)	2.77±0.48		3.96±0.88		3.09±0.59			
Health status	Good(a)	61(25.1)	3.10±0.48	15.44 (.001)	4.42±0.87	7.09 (.001)	3.01±0.55	5.514 (.005)		a,b/c
	Medium(b)	104(42.8)	3.04±0.45		4.26±0.84		3.00±0.53			
	Bad(c)	78(32.1)	2.73±0.40		3.92±0.78		3.25±0.49			

안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8점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초월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F=4.87, p=.001$ ), 배우자가 있는 경우( $t=2.55, p=.011$ ),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경우( $t=3.84, p<.001$ ),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F=15.44,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t=-6.21, p<.001$ ),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F=2.86, p=0.24$ ), 배우자가 있는 경우( $t=2.94, p=.004$ ),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경우( $t=2.64, p=.009$ ),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F=7.09,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은 여성의 경우( $t=-2.39, p=.018$ ),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F=5.51, p=.005$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able 2).

### 3.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영적안녕과 죽음불안( $r=-.19, p<.005$ ), 자기초월과 죽음

불안( $r=-.21,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영적안녕과 자기초월( $r=.56,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 4.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F값은 27.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  $R^2$ 값은 .32으로 나타나 자기초월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32.0%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자기초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영적안녕( $\beta=.50, p<0.5$ ), 건강상태( $\beta=.15, p<0.5$ ), 성별( $\beta=-.14, p<0.5$ )로 확인되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정도와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초월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6점으로 Thomas 등(2010)의 연구결과 3.52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도구이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Kim (2012)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노인의 자기 초월감이 각각 1.15점, 1.34점(4점 만점)인 것보다는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 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N=243

Variables	r (p)	
	Self- 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Self- transcendence	-	
Spiritual well-being	.56(<.001)	-
Death anxiety(c)	-.21(<.001)	-.19(<.005)

Table 4. The Predictors of Sel-f transcendence

N=243

Variables	B	$\beta$	t	p
Spiritual well-being	1.86	.50	7.80	<.001
Health status	.27	.15	2.28	.024
Gender	.29	-.14	-2.15	.033

$R = .57, R^2 = .32, Adjusted R^2 = .31, F = 27.51, p<.001$

Independent variables: Spiritual well-being, Health status, Gender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나 건강상태 등 대상자의 서로 다른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자기초월정도를 반복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항을 분석하였을 때 '내 과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문항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나는 배우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자기 초월 정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반성적인 의미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의 영적안녕은 6점 만점에 평균 4.1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won과 Kim (2003)의 연구결과 2.20점(4점 만점), 역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Sung (1998)의 연구결과 2.11점(4점 만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타 연구 대상자보다 본 연구 대상자가 비교적 높게 영적안녕 점수를 보인 것은 사회문화 및 인구학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서적인 힐링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영적안녕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적안녕 측정 문항을 분석한 결과 '나는 신과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큰 만족을 얻는다'는 문항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노화과정이나 생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Kim, 2004) 영적인 만족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나의 장래를 좋게 본다'는 것으로 이는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질병, 경제적 상실감, 사회적 소외감 등 다양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죽음불안 점수는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죽음불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 (2007)의 연구 결과 2.42점(4점 만점), Lee, Kang, Kim (2010)의 연구 결과 2.35점(4점 만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Lee와 Kim (2011)의 연구결과 2.50점(4점 만점)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경험해야 될 현상이지만 노인들은 젊은 사람

보다 연령적으로 죽음과 가까이 있고 현실적으로 몸의 쇠약으로 인해 더욱 죽음을 체감하게 되고 또 주변의 지인들의 죽음을 목도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다른 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은 조사시점에서 노인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상태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죽음불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죽음불안의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죽음불안 측정 문항 중 '고통스럽게 죽을까봐 두렵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안한 임종을 맞기 바라는 노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전쟁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이며 이는 오랜 시간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한 노인들의 연륜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초월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초월과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등과 연결하여 유의미를 제시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자기초월이 삶의 질 및 정서적 안녕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Neill, 2002)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력, 가족의 지지, 교육수준 등을 제시한 연구결과(Cho, 201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기초월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Jang과 Kim (2008)의 연구결과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대상자의 자기초월 점수가 높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Nygren 등(2005)과 Baker (2009)의 연구결과에서 건강상태와 자기초월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won과 Kim (2003)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영적안녕이 높게 나타난 결과, 대상자의 연령, 종교, 가족 동거 현황, 월평균 용돈에 따라 영적안녕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 (2004)의 결과와 같다. 종교는 노인들의 영적 안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상태 또한 노인들의 실존적인 삶에 안정감을 제공하므로 영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hong, Jo, An & Jeong, 2012)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즉 가족관계가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이며 영적안녕에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은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죽음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하고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Choi (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성별에 따른 복합적 변인을 포함하여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죽음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은 Choi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발한 육체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죽음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영적안녕과 죽음불안, 자기초월과 죽음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영적안녕과 자기초월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초월이 죽음불안과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Baker (2009)의 연구 결과, 자기 초월은 영적안녕과 유의미한 순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Thomas 등(2010)의 연구결과 그리고 영적안녕과 죽음불안이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Kwon & Kim (2003)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기초월은 삶과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조직화 하고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노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체, 심리, 영적으로 다각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영적안녕과 자기초월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죽음에 가까이 있는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영적인 간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간호중재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상자의 자기초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적안

녕, 건강상태, 성별로 확인되었으며 자기초월을 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안녕은 Thomas 등(2010)의 연구결과, 건강상태가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Baker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기 초월은 내외적인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심리 사회적 지표로서 회복력과 삶의 목적, 정서적 안녕, 삶의 질을 증진하고, 영적인 안녕,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eill, 2002, Nygren et al., 2005, Thomas et al., 2010). 사람들은 영적 초월을 경험할 때 보다 더 인지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지며, 자기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삶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Jang & Kim, 2008).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이 서로 관련이 있으며 영적안녕이 증진되고 죽음불안이 감소하면 노인 삶의 성장에 의미가 있는 자기초월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과의 유대감 저하, 신체기능의 감소 등 다각적인 변화와 위협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영적 안녕과 자기초월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간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대도시에 거주하며 연구에 동의한 재가노인 243명을 대상으로 자기초월, 영적안녕,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관계와 자기 초월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영적 안녕, 자기 초월이 높은 경우 죽음불안은 낮고 영적안녕이 높은 경우 자기초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화과정과 더불어 질병이나 생의 위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영적안녕과 자기초월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영적안녕, 건강상태가 대상자의 자기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노인대상자를 간호하는 의료인들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녕을 증진하여 자기초월을 형성하고 성

공적인 노화를 방해하는 죽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aker, D. (2009). Relationship of self-transcendence and death anxiety to older adult's participation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Southern Onlin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9(2), 1.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 Cho, C. M. (2013).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low-income elders living at home: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372-38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372>
- Choi, W. S. (2007). A study on the elderly's ego integrity and death anxiet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4), 755-773.
- Chong, Y. S., Jo, S. A., An, J. S., & Jeong, Y. J. (2012). Effect of family relations as 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on successful ageing in Korean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19-41.
- Jang, D. J., & Kim, Y. T. (2008). A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transcend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hristian young adul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ling*, 11, 165-186.
- Kim, C. N. (2004).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8(2), 342-357.
- Kim, H. K. (2012). Gender Differenc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819-834.
- Kim, K. H., Kwon, H. J., Choi, M. H., Park, Y. J., & Kim, S. K. (2010). Psychological and spiritual factors associated with death anxiety of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9(1), 96-105.
- Kim, E. J. & Kim, Y. (2011).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Korean women based on successful aging theory(SAT).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7(4), 378-387.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4.3>
- Ko, H. G., Choi, J. O., & Lee, H. P. (2006).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K-Templer Death anxie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315-328.
- Kwon, Y. S. & Kim, C. N. (2003).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1), 132-143.
- Lee, H. N., Kang, E. N., & Kim, S. W.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examination of impact of family function, spiritual well-being and ego-integr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9, 311-332.
- Lee, J. I. (2012).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in the middle aged.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572-580.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572>
- Lee, S. H., & Moon, M. J. (2012). The relationship of life satisfaction, health behaviors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04-214. <http://dx.doi.org/>



- 10.5932/jkphn.2012.26.2.204
- Lee, J. I. & Kim, S. Y. (2011).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in the aged.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1), 28-37.
- Neill, J. (2002). Transcendence and transformation in the life patterns of women living with rheumatoid arthriti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4, 27-47.
- Nygren, B., Alex, L Jonsen, E., Gustafson, Y., Norberg, A., & Lundman, B. (2005). Resilience, sense of coherence, purpose in life and self-transcendence in relation to perceiv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mong the oldest old. *Aging & Mental Health*, 9(4), 354-362. doi: 10.1080/1360500114415
- Oh, S. C. (2008). *Study of senior housing residents' fear of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york : Jorn Wiley & Sones.
- Park, S. A. & Hur, J. S. (2012). Determinants of the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0(1), 59-88.
- Reed, P. G. (1986). religiousness among terminally ill and health adults. *Research in Hursing & Health*, 9(1), 35-41.
- Reed, P. G. (1991). Self-transcendence and mental health in oldest-old adults. *Nursing Research*, 40(1), 5-11.
- Reed, P. G. (2009). Demystifying Self-transcendence for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5), 397-400.
- Riffle, K .L., Yoho, J., & Sams, J. (1989). Health promoting behavio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 reported health of Appalachian elderly. *Public Health Nursing*, 6(4), 204-211.
- Sung, M. S. (1998).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Daegu.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5-171.
- Thomas, J. C., Burton, M., Griffin, M. T., & Fitzpatrick, J. J. (2010). Self-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practices of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Holistic Nursing*, 28, 115-122. doi: 10.1177/0898010109358766
- Tornstam, L (1999). Gerotranscendence and the functions of reminiscence.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4(3), 155-166.
- Wayman, L. M., & Gaydos, H. L. (2005). Self-transcending through suffering.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7(5), 263-270.

## Self-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

**Kim, Soon Yi**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Lee, Jeong 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lf-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of elderly.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2013, from 243 elderly persons. Questionnaires were used in order to solicit information on self-transcendence,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in analysis of data. **Results:** Average scores were 2.96 for self-transcendence, 4.19 for spiritual well-being, and 3.08 for death anxiety.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elf-transcendence and death anxiety,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However, from the statistical point of view,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lf-transcendence and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well-being, health status, and gende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transcendence.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use in development of a program to encourage a healthy lifestyle for elderly persons.

**Key words :** Elderly, Spirituality, Anxiety